

대학생의 성 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에 관한 연구

김순구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Sexual Attitude, Autonomy and Harassment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Soon-Gu Kim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 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D시에 소재한 대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3일부터 8일까지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ann-whitney U-test, Kruskal-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 태도는 평균 4.01점, 성적 자율성은 평균 1.95점, 성희롱 경험은 평균 0.95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성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U=2124.50, p=.000$)과 학과($U=5741.00, p=.026$)로 나타났다. 성적 자율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U=2529.50, p=.001$)과 대인관계 만족도($X^2=9.46, p=.009$)였으며, 성희롱 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학과($U=5604.00, p=.007$)였다. 대상자의 성 태도는 성적 자율성($r=.517,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학생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적 자율성($\beta=.46, p<.001$)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성 태도와 성적 자율성을 증진하고 성희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의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among sexual attitudes, autonomy, and harassment experience and to find out how each factor affects the sexual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were 236 college students in D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3 - 8, in 2015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8.0 program. For data analysis, a Mann-Whitney U-test, Kruskal-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scores of sexual attitude, sexual autonomy, and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were 4.01, 1.95, and 0.95 points, respectively. Seco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sexual attitud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gender ($U=2124.50, p=0.000$) and department ($U=5741.00, p=0.026$), sexual autonomy were considerably different in gender ($U=2529.50, p=0.001$) and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s ($X^2=9.46, p=0.009$), and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department ($U=5604.00, p=0.007$). Third, a positiv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autonomy ($r=0.517, p<0.01$). Sexual autonomy was found to influence the sexual attitudes ($\beta=0.46, p<.001$).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ed to develop sex education programs in various situations for college students and that sex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constantly.

Keywords : College, Sexual Attitude, Sexual Autonomy,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Student

1. 서론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는 청소년 후반기를 지나 성년 초기에 속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이성교제와 성행동을 실제로 이행할 수

1.1 연구필요성

*Corresponding Author : Soon-Gu Kim(Daegu Health College)

Tel: +82-10-4518-1521 email: sgkim@dhc.ac.kr

Received November 17, 2016

Revised (1st January 3, 2017, 2nd January 23, 2017)

Accepted March 10, 2017

Published March 31, 2017

있는 시기이다[1,2]. 또한 이들은 이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므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 건강한 성문화 정착에 필요한 건전한 성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는 사회변화와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2004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 태도는 중립적이었던 반면[2], 2014년에는 그 전보다 더 개방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러한 성에 대한 개방적인 분위기는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많은 정보의 유입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경로를 통하여 건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성 태도가 더 개방적이고 관대하며 남녀평등 의식이 높다[2]. 중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성태도 함양을 위해 사춘기의 변화, 남녀의 차이, 성 심리 차이, 남녀의 관계, 사랑에 대한 이해, 사랑과 우정, 데이트 성폭력 예방과 대처법, 표현하기와 듣는 기술 등의 교육을 시행하고[4], 많은 대학에서 학생을 위한 현실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성에 대한 많은 지식의 획득으로 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확립되리라 기대한다.

성적 자율성은 성적인 관계의 맥락에서 필요한 결단력과 의사결정에 대한 조절 능력으로[5], 성적인 자기존중에 영향을 미친다[6].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허용도 수준은 낮고 미혼모에 대한 인식수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성, 위험한 성, 안전한 성을 향하여, 너와 나를 지키는 올바른 성 등에 대한 주제로 교육을 받은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이 높았으며[8], 자궁경부암 예방 성교육을 받은 여대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9],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성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표현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적인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10], 85%의 대학생이 대부분의 가해자가 사회적 강자이며, 이러한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11]. 한편 성희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성 평등 의식이 낮게 나타나[12],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위장병, 불면증, 두통, 복통 등과 같은 신체적 불편감과 의욕상실, 대인관계 위축,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 불안, 직무 스트레스 증

가, 근로의욕과 업무능력 저하, 부서 이동이나 직무전환 고려, 사직의사 증가 등을 경험하고[10,13,14], 대부분 아무런 대처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성희롱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한다[6].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다양한 문제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대학생일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다. 지금까지의 성희롱 경험에 대한 연구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직원[15], 여군[16], 대학 직원[17], 간호사[18,19], 요양보호사[13] 등 다양한 연구 대상에서 이루어졌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성희롱은 직종과 무관하게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20]. 성희롱의 발생이 대학 내에서 가장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15],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대학생에 대한 성희롱 경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성희롱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성희롱이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성범죄 중 하나라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초·중·고등학교·대학·사회 전체 구성원의 협력이 요구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대학생의 성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21]와 성적자율성이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율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므로[5], 대학생의 성희롱 경험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현재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성 태도와 성적 자율성[2,22], 성태도와 성 경험[2,23], 성적 자율성 영향요인[7,21], 성교육과 성적 자율성[9] 및 성희롱 인식에 대한 연구[3,12]가 대부분이었으므로, 대학생이 성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성적 자율성의 수준이 어떠한지, 성희롱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 태도, 성적 자율성, 성희롱 경험 등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성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성 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성 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성 태도, 성적 자율성, 성희롱 경험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학생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성 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을 파악하고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일 대학의 보건 계열과 비보건계열 학과 각각 2개씩 총 4개 학과 학생들을 편의표집 하였다. 해당 학과 학과장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고 서면 날인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자료에 대한 비밀보장, 익명보장,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의 철회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9월 3일부터 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5, 검정력 80%로 산출한 결과 적정 표본 크기는 193명이었다. 편의표집 대상자에 대한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부를 배부하여 247부(98.8%)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자료 11부를 제외하고 23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성 태도

성 태도란 성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일관성 있는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으로[24], 본 연구에서는 Whang[22]이 개발한 대상자의 성 태도 인식도를 나타내는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다. 총 27문항이며, 부정 문항은 역산하였

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Whang[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2.3.2 성적 자율성

성적 자율성은 성이라는 본성과 자율이라는 이성이 통합되어 성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이며, 자신이 외부적 조건이나 내부적 조건에 자신의 방식대로 대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이다[25]. 본 연구에서는 Chang[25]의 성적 자율성 평가도구를 Whang[2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총 13문항이며, 5점 Likert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hang[2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6이었고, Whang[22]의 연구에서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3 성희롱 경험

성희롱 경험이란 성적인 언동에 대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17], 본 연구에서는 Park[13]이 여성가족부 성희롱예방 업무편람과 Kim[26]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수정 보완하여 성희롱 피해경험 정도를 나타내는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다. 총 24문항이고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최저 24점에서 최고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 피해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Park[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9였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 태도, 성적 자율성, 성희롱 경험 등은 빈도, 백분율, 평균평점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 성적 자율성, 성희롱 경험의 차이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Mann-whitney U-test와 Kruskal-wallis test로 분석하

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시행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성 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성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26명(11.0%)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115명(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한다' 110명(46.6%), '만족하지 못한다' 11명(4.7%)으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08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104명(44.1%), '만족하지 못한다' 24명(10.2%)으로 나타났다<Table 1>.

3. 연구결과

3.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학생 197명(83.5%), 남학생 39명(16.5%)이었다. 연령은 평균 21.5세로 20~24세 228명(96.6%), 25~29세 4명(1.7%), 30세 이상 4명(1.7%)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 166명(70.3%), 기독교 34명(14.4%), 불교 25명(10.6%), 천주교 10명(4.2%) 순이었다. 비보건계열 학생은 129명(54.7%), 보건계열 학생이 107명(45.3%)이었으며,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112명(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한다'가 98명(41.5%), '만족하지 못한다'

3.2 대학생의 성 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

보건 및 비보건 학과 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에 대하여 측정된 결과 5점 만점 중 성 태도는 평균평점 4.01점으로 성에 대하여 중간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자율성은 1.95점으로 낮은 성적 자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희롱 경험은 0.95점으로 대상자들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경험의 3개 하위 영역 중 '언어적 성희롱' 2.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성희롱'이 1.77점, '시각적 성희롱' 1.62점 순이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xual Attitude, Autonomy and Harassment Experience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6)

Characteristics	Respondents	Percentage (Mean)	Sexual Attitude		Sexual Autonomy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M±SD	U/X ² (p) Scheffe	M±SD	U/X ² (p) Scheffe	M±SD	U/X ² (p) Scheffe	
Gender	Male	39	16.5	18.78±1.96	2124.50	8.84±2.04	2529.50	4.50±2.23	3265.00
	Female	197	83.5	20.33±1.90	(.000 [*])	9.96±1.39	(.001 [*])	4.78±2.41	(.110)
Age	20-24	228	96.6	20.08±2.99	2.36 (.307)	9.77±1.57	2.88 (.237)	4.75±2.41	.25 (.883)
	25-29	4	1.7	20.98±1.34		10.72±1.49		3.96±.61	
	30≤	4	1.7	18.93±1.77		9.16±1.38		4.44±1.66	
Religion	None	166	70.3	19.98±2.07	5.67 (.225)	9.78±1.65	2.08 (.721)	4.73±2.49	5.50 (.239)
	Buddhist	25	10.6	20.82±1.30		9.95±1.35		4.83±2.05	
	Christian	34	14.4	19.95±2.02		9.56±1.46		4.94±2.43	
	Catholic	10	4.2	20.39±1.59		10.03±1.12		4.73±2.49	
	Others	1	.4	17.02		8.85		17.29	
Department	Health	107	45.3	20.43±1.68	5741.00	9.91±1.31	6583.00	5.22±2.89	5604.00
	non-Health	129	54.7	19.78±2.17	(.026 [*])	9.66±1.75	(.542)	4.33±1.77	(.007 [*])
Satisfaction with collegiate life	Satisfied	98	41.5	19.82±2.31	.40 (.819)	9.74±1.72	1.62 (.445)	4.57±1.79	1.43 (.490)
	Moderate	112	47.5	20.03±1.91		9.66±1.56		5.10±2.93	
	Dissatisfied	26	11.0	20.19±2.00		9.91±1.53		4.36±1.67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s	Satisfied ^a	110	46.6	18.63±2.44	4.46 (.108)	9.41±2.01	9.46 (.009 [*])	6.18±3.48	3.05 (.218)
	Moderate ^b	115	48.7	20.03±1.90	a<c	9.49±1.60	b<c	4.81±2.46	
	Dissatisfied ^c	11	4.7	20.27±1.99		10.10±1.42		4.51±2.12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108	45.8	20.31±2.38	4.23 (.121)	9.55±1.68	1.07 (.587)	5.01±2.54	2.92 (.232)
	Moderate	104	44.1	19.84±1.75		9.75±1.46		4.88±2.55	
	Dissatisfied	24	10.2	2.10±.20		9.85±1.65		4.53±2.18	
All	236	100.0							

p< .05

Table 2. Sexual Attitude, Autonomy and Harassment Experience of the subjects (N=236)

Variables		M±SD
Sexual Attitude		4.01±.40
Sexual Autonomy		1.95±.31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Physical	1.77±.95
	Verbal	2.42±1.23
	Visual	1.62±.87
	Sub-Total	.95±.48

3.3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

대학생의 성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U=2124.50, $p=.000$)과 학과(U=5741.00, $p=.026$)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점수가 높으므로 성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대인관계 만족도가 ‘불만족’인 학생이 ‘만족’인 학생보다 성 태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율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U=2529.50, $p=.001$)과 대인관계 만족도($\chi^2=9.46$, $p=.009$)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대인관계 만족도가 ‘불만족’인 학생이 ‘중간’인 학생보다 성적 자율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희롱 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학과(U=5604.00, $p=.007$)로 나타났는데,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점수가 높아 보건계열 학생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후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3.4 성 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 간의 관계

대학생의 성 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자의 성 태도는 성적 자율성($r=.517$,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Relationship of Sexual Attitude, Autonomy and Harassment Experience of the subjects (N=236)

	Sexual Attitude $r(p)$	Sexual Autonomy $r(p)$
Sexual Autonomy	.517(.000)**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107(.100)	-.099(.128)

** $p<.01$

3.5 대학생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회귀분석 시 고려되어야 할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이상이었으며, 분자확대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도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은 성별, 연령, 종교, 학과, 대학 생활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전공 만족도, 성적 자율성, 성희롱 경험 등을 가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적 자율성($\beta=.46$, $p<.001$)이 대학생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성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태도에 대한 총 설명력은 29.3%로 나타났다($F=11.84$, $p<.001$)<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Sexual Attitude of the subjects (N=236)

Variables	β	t	p	VIF	tolerance
(Constant)		11.62	<.001		
Gender	.13	2.10	.037	1.215	.823
Age	-.06	-1.00	.317	1.055	.948
Religion	-.10	-1.75	.082	1.046	.956
Department	-.13	-2.13	.035	1.157	.864
Satisfaction with collegiate life	.03	.32	.748	1.938	.516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s	.01	.12	.906	1.573	.636
Satisfaction with major	.00	.04	.966	1.720	.581
Sexual Autonomy	.46	7.93	<.001	1.120	.893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09	-1.01	.109	1.070	.935

F-value: 11.84 p-value: <.001 R^2 : .320 adj R^2 : .293

4.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에 대하여 파악하고, 그들의 관계와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대학생의 성 건강 관리에 효과적인 중재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 태도는 5점 만점에 4.01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안산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의 3.36점(4점 만점)보다 약간 낮았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7]의 3.07점(4점 만점), 서울과 경기도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2]의 3.09점, (5점 만점)과 충청도와 강원도 소재 대학생 연구[23]의 2.98점(5점 만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지역적인 부분과 편의표집에서 기인한 오차의 결과로 사료된다. 일회성이 아닌 반복성의 지속적인 성교육은 중학생의 성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므로[28], 대학생들이 성에 대하여 더욱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올바른 성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 태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사후분석 결과 대인관계가 불만족한 학생의 성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도 여학생의 성 태도가 더 긍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대한 차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9]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 남학생의 성 태도가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중학생에게 성교육을 시행하고[28], 중·고등학생에게 성교육 횟수를 증가시킬수록[30], 지적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에게 역할극을 통한 성교육을 시행한 후[31],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므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준에 적합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한편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성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선행연구[3,22]와 본 연구 결과가 일치하였으므로 교양으로 성과 건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가 인지한 성적 자율성은 5점 만점에 1.95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2,21]의 결과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교육을 받은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이 높아졌다는 다른 연구[8,9]결과와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과별로 성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과 대인관계 만족도

가 성적 자율성과 관련 있는 변수였다. 여대생과 대인관계 만족도가 ‘불만족’인 학생의 성적 자율성이 더 높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여러 연구[2,21,22]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적 자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에 대한 선택에서도 타인의 생각이나 강요가 아닌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중요하게 인식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 성교육을 받은 여대생[9]과 건강강념모델에 근거한 성교육을 받은 대학생[8]의 성적 자율성이 높아졌으며, 성격 유형에 따라 성적 자율성의 수준이 상이하므로[32], 학생들의 성적 자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성격 수준에 따른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대인관계 만족도가 ‘불만족’인 학생의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은 추후 반복연구를 통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는 다양한 인문학 교육 특강과 협동학습 교육활동을 통하여 대학생의 대인관계 기술을 증가시키고 원만한 대인관계술을 습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연구 대상자의 성희롱 피해 경험은 5점 만점에 0.95점으로 성희롱 피해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성희롱 경험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덜란드의 경우 20.4%의 의대생이 병원실습 중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였다는 연구[33]와 62%의 여대생이 자신의 대학에서 성희롱을 당할 정도로 대학에서 성희롱이 빈발한다는 미국 대학여성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의 보고[34]와 상반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학에서 매년 시행하는 성교육과 성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상담과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성희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전국의 대학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상자의 학과에 따라 성희롱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성희롱 피해경험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보건계열 학생의 건물 구조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비보건계열 학과의 경우 타 학과와 분리된 건물을 사용하고 여학생의 비율이 높지만, 보건계열 학과의 경우 타 보건계열 학과와 동일한 건물에서 이성과의 접촉 기회가 훨씬 많다. 성희롱 경험의 경우 대부분 이성 간에, 공공기관보다 대학에서, 대학 내에서는 학생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17], 성희롱 예방교육 시 성희롱

과 성폭력, 윤리적·법적 책임, 올바른 대처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연구 대상자의 성 태도, 성적 자율성, 성희롱 경험 간의 관계를 검정한 결과 성 태도가 긍정적인 대상자가 성적 자율성이 높았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대상자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적 자율성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9.3%였다. 성과 관련된 태도가 긍정적인 대상자가 성에 대한 의사결정 시 자율적이고 개방적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었다.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2]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는 성 태도와 성적 자율성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로 임하고, 스스로 자율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공계열별 다양한 상황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도움이 될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일반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 태도, 성적 자율성, 성희롱 경험 등을 파악하여 관계를 규명하고, 그들의 성 건강관리에 적합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 태도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성적 자율성은 낮았으며, 성희롱 피해 경험은 거의 없었다. 대학생의 성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과 학과였는데, 여학생과 보건계열 학생의 성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사후검증결과 대인관계 만족도가 ‘불만족’인 학생의 성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율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과 대인관계 만족도였으며, 사후검증결과 대인관계 만족도가 ‘불만족’인 학생과 여학생의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학과였는데,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성희롱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 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성 태도는 성적 자율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상자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적 자율성이 대학생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29.3%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 태도 및 성적 자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전국의 대학생에 대한 성희롱 피해경험 실태조사를 제언한다. 셋째, 성희롱 경험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Y. H. Kim, B. S. Keun, S. H. Kim, J. M. Kim, H. M. Son, M. S. An, S. E. Oh, N. Y. Lee, Y. E. Lee, J. W. Lee, H. M. Jung, I. S. Cho, H. O. Joo etc, *Wong's Essentials of Pediatric Nursing*, pp. 650-677, Hyunmoon Publishers, 2015.
- [2] M. S. Choi, N. S. Ha,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s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10, 4, pp. 318-330, 2004.
- [3] J. H. Wee,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Maturity Variables and Sexual Attitude, the Awareness on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MS thesis, Suwon University, 2014.
- [4] K. R. Choi, Analysis of Content Factors of related on Guidance Program for the Cultivation of Sound Sex Attitud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2014.
- [5] A. Parkes, M. Henderson, D. Wight, C. Nixon, "Is Parenting Associated with Teenagers' Early Sexual Risk-taking, Autonomy and Relationship with Sexual Partners?",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43, 1, pp. 30-40, 2011.
DOI: <https://doi.org/10.1363/4303011>
- [6] K. D. Heinrichs, C. Macknee, F. Auton-Cuff, J. F. Domene, "Factors Affecting Sexual-self Esteem among Young Adult Women in Long-term Heterosexual Relationships",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18, 4, pp. 183-199, 2009.
- [7] G. Y. Cho, Y. H. Kim, "Factors Affecting Sexual Autonomy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 11, pp. 6710-6718,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11.6710>
- [8] Y. H. Shin, Y. K. Chun, S. M. Cho, Y. R. Cho, "The Effects of a Sex Education Program on Knowledge related to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Sexual

-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Nursing*, 35, 7, pp. 1304-1313, 2005.
- [9] J. H. Kim, M. K. Park, "Effects of Preventive Sexual Education of HPV on HPV Knowledge, Cervical Cancer Preventive Behaviors and Sexual Autonomy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16, 2, pp. 257-264, 201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2.257>
- [10] S. J. Park, B. R. Yoon,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Improvement of public event trapping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Report of Incheon Foundation for Women and Family, 2014.
- [11] J. M. Byun, A Study of Sexual Harassment Judgement based on Social Status: Focusing on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M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3.
- [12] E. S. Chung, "Sexual Consciousness, Gender Egalitarianism and Awareness Levels of Sexual Harassment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 7, pp. 4679-4688,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7.4679>
- [13] K. R. Park, A Study on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Influencing Job Stress: Focused on Caregivers for the Elderly, MS thesis, Hallym University, 2014.
- [14] M. E. Bell, J. A. Turchik, J. A. Karpenko, "Impact of Gender on Reactions to Military Sexual Assaults and Harassment", *Health & Social Work*, 39, pp. 25-33, 2014.
DOI: <https://doi.org/10.1093/hsw/hlu004>
- [15] N. Y. Lee, E. K. Bae, K. S. Kim, M. K. Won, M. Y. Koo, J. S. Sung, A Study on the Reality of Sexual Harassment in 2015, Report of Ministry of Women and Family, 2015.
- [16] J. I. Hwang, J. S. Joo, I. S. Gwon, S. Y. Jeong, Preliminary Study for the 2016 Survey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Report of Ministry of Women and Family, 2015.
- [17] M. J. Lee, M. H. Chang, S. Y. Jung, E. Y. Heo, Research on Measures to Prevent Campus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and Strengthen Victim Protection, Report of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5.
- [18] H. K. Oh, Perception, Incidence and Coping Styles of Sexual Harassment among Nurses, MS thesis, Hallym University, 2016.
- [19] M. Park, S. H. Cho, H. J. Hong, "Prevalence and Perpetrators of Workplace Violence by Nursing Uni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and Perceived Work Environment",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47, 1, pp. 87-95, 2015.
DOI: <https://doi.org/10.1111/jnu.12112>
- [20] C. Kane-Urrabazo,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t is Your Problem",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15, pp. 608-613, 2007.
DOI: <https://doi.org/10.1111/j.1365-2834.2007.00725.x>
- [21] E. S. Do, Y. S. Seo, "Factors Influencing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Fundamental Nursing*, 20, 2, pp. 129-136, 2013.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3.20.2.129>
- [22] I. M. Whang, A Study of Korean Students' Sexual Knowledge, Self-regulation, Attitude and Their Perception of Unwed Pregnancy, MS thesis, Eulji University, 2009.
- [23] E. M. Kim, S. J. Yu, M. Y. Song, "Correlation between History of Intercourse to Obscene Material, Sexual Attitudes and Intercourse Experi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Fundamental Nursing*, 20, 1, pp. 18-26, 2013.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3.20.1.18>
- [24] S. H. Kang, A Study on Variables Affecting Sexual Behavior of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MS thesis, Gachon University, 2016.
- [25] S. B. Chang, "Development of Sexual Autonomy Measuremen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8, 1, pp. 106-115, 2002.
- [26] I. A. Kim, Coping Measures for Care Workers' Damages by Sexual Harassment, MS thesis, Gaya University, 2012.
- [27] H. Y. Koo, S. S. Kim, "Relationships among Cybersex Addiction,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and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in Adolescents", *Journal Korean Academic Nursing*, 37, 7, pp. 1202-1211, 2007.
- [28] E. J. Kim, Y. H. Yom, K. E. Lee, B. K. Cha, S. H. Cho, "Sexual Attitude Changes after Sex Education according to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Fundamental Nursing*, 12, 3, pp. 362-373, 2005.
- [29] M. J. Sung, The Impact of Internet Pornography on Adolescents' Sexual Beliefs, Attitudes and Behaviors, MS thesis, Kangnam University, 2014.
- [30] H. J. Kim, A Study on Analysis of Influence Factor of Christian Youth's Sexual Consciousness, Attitude and Behavior and It Consequential Pastoral Caring Plan, M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2014.
- [31] H. J. Jeon, Effects of Sex Education Utilizing Role-play on Knowledge and Attitudes of Sex and Self-esteem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5.
- [32] H. K. Lee, Difference in the Types of Personality by MBTI and Sexual Autonomy among College Students, MS thesis, KongJu University, 2006.
- [33] J. JDJ. M. Rademakers, M. ETC. van den Muijsenbergh, G. Slappendel, A. LM. Lagro-Janssen, J. CC. Borleffs, "Sexual Harassment during Clinical Clerkships in Dutch Medical Schools", *Medical Education*, 42, pp. 452-458, 2008.
DOI: <https://doi.org/10.1111/j.1365-2923.2007.02935.x>
- [34] C. Marshall, K. Dalyot, S. Galloway, "Sexual Harassment in Higher Education: Re-framing the Puzzle of Persistence", *Journal of Policy Practice*, 13, pp. 276-299, 2014.
DOI: <https://doi.org/10.1080/15588742.2014.929070>

김 순 구(Soon-Gu Kim)

[종신회원]



- 1998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3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00년 3월 ~ 2004년 8월 : 강원
관광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2004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
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학, 간호교육, 아동 건강과 부모역할